

추억담긴 보광재 옛길 미래유산되나

전주시, 시민제안 통해 후보군 접수 소유주 동의 절차 거쳐 추가 지정키로

전주시 서서화동 흑석골과 구임·입실을 연결하는 고갯길인 보광재 옛길을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려는 주장이 나왔다.

보광재는 과거 구이·입실 주민들의 통학로이자, 전주남부시장에 농산물을 팔거나 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길로 많은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옛길이다.

전주시는 미래유산 지정을 위한 시민제안 공모를 통해 보광재 옛길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미래유산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미래유산은 근·현대를 배경으로 전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 이야기가 담긴 모든 유·무형의 가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시는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후손들에게 보물로 물려줄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보광재 옛길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미래유산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나머지 후보군에 대해서도 소유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해나갈 계획이다.

미래유산으로 최종 지정되면, 관련 정보가 전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jonju.go.kr) 내 미래유산 항목에 소개되고, 푸북이투어와 미래유산 아카데미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보광재 옛길은 전주와 완주군 구이 상하부·평촌을 연결하는 고갯길로, 입실 신덕으로 향하는 불재까지 연결된 교통로였다. 전주에서 삼국시대 대사찰인 보광사와 경복사로 가는 길이기도 했으며, 고개 이름 또한 보광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광재 고갯길은 비록 도로개설로

수레가 넘나들 정도로 넓어 과거 수 많은 사람들이 땀과 열무 등의 재소를 지고 고개를 넘어 남부시장 사전 인근에서 물건을 팔기도 했다. 또, 전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길이 되기도 했고, 도회지로 나가는 길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제안 접수와 소유주 동의를 거쳐 100년 후 보물이 될 총 38건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바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보광재 옛길은 도로개설 이전 시민들이 어려웠던 시절 애용했던 고갯길이자 현재는 산책과 등산로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전주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미래유산으로 선정해 보존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청년이 세상의 중심일세’

전주 가운누리 청년축제 성료... 버스킹 등 운영

전주시 청년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청년축제가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졌다.

시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전주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에서 청년 창작·창직·창업활성화를 위한 ‘전주 가운누리 청년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30인의 청년창업자들이 프리마켓을 통해 손수 제작한 창업 아이템을 홍보·판매하는 창작·창업 실천연습을 통해 창업 가로써 꿈을 펼쳤다.

또한 8개 팀의 청년 버스킹들은 자신의 예술적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청년문화에 숭고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축제 구성 중 청년들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던 ‘한복 플래시 톱’은 K-POP 음악에 맞춰 150여명이 한복을 입고 끼를 펼치려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축제에서는 ‘전주한옥마을을 청년의 기운으로 신명나게!’를 주제로 5개 팀 20명이 참여한 청년밤샘토론크이프도 진행됐다. 시는 이번 토론크이프에서 제시된 청년창업·창직 관련 새로운 아이

디어는 내년도 청년상상놀이터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들이 ‘청년축제운영단’을 구성하고 행사기획과 구성, 운영 창작·창직·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축제운영단은 이번 가운누리 청년 축제에서 청년들의 87가지 공통관심사로 공간을 구성한 ‘청년존’을 운영, 축제에 참가한 지역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청년축제운영단에 참여한 한 청년은 “그간 기관과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은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에 보조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이번 가운누리 청년축제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두가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 그대로 반영되고 현실로 실현된다는 게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청년들의 자율적, 주체적, 창의적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에도 청년상상놀이터 내 청년활동활성화를 위해 민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보훈공원 조성 ‘속도’

시, 기본계획안 보고 청취... 2020년까지 58억원 투입

전주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보훈단체의 오랜 꿈인 전라북도·전주시 보훈공원 건립을 위한 ‘보훈공원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호국보훈 정신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전라북도·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58억원(시비 25억, 도비 33억)을 투입해 송천동 어린이회관 인근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 일원에 충혼탑과 추모광장, 보훈관련 조형물, 부대시설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송효철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보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내용 검토와 지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로 조성될 보훈공원이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호국, 보훈 교육·체험의 장이자 시민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앞으로 보훈공원 추진위원회의 자문과 보훈단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나라사랑과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념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대표보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눈을 감는 최규호 전 교육감

지난 9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8일 검찰은 8년의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시 청년희망단 공개모집

오늘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전주시가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문제를 발굴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3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시는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온라인(http://naver.me/Ghtkw7e)을 통해 전주시 청년정책 제안기구나 청년희망단 위원으로 활동할 청년들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희망단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단체인데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만18~39세 청년 60명으로 구성된다. 전주시에 거주하며 청년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청년희망단 위원 모집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단 소개 프로그램과 1·2기 청년희망단 위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및 퍼실리테이션 교육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신청 내용 및 참여도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위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수시 탐방활동을 진행하여 지역청년의 의견수렴을 통한 문제 발굴과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동물원 대표동물 수달 공개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중인 전주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은 앞으로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주는 수달의 생활습성을 관찰할 수 있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 야외 방사장에 수달을 입식하고, 관람객에게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주전과 삼전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은 전주동물원의 대표동물로 이번에 공개되는 수달은 유라시아 수달 2마리이다.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식구가 된 유라시아 수달 2마리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구조됐으나 자연방사가 불가해 무상으로 기증받은 개체로, 기증 받을 당시에는 너무 어려 아이 방사시 폐사율이 높아 이번 공개가 이뤄지게 됐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만성지구·에코시티 대상 공동주택 품질검수 추진

전주시가 신도시인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주민들의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아파트에 대한 꼼꼼한 품질검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관련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만성지구 시티프라자아파트와 에코시티 데시앙3차·4차아파트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품질검수위원회는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 건축시공과 건축구조, 설계감리, 토목, 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85명중 시공사가 품질검수를 요청할 경우 단지별로 7명의 분야별 품질검수 위원을 배정해 품질검수를 시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품질검수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구조, 토목, 조경 등의 시공상태에 대해 분야별 점검 목표에 따라 서류와 현장을 점검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